

횡성 꿈틀어울림센터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 박현철 | ☎ 승인 2025.07.09 | □ 14면

아이~노년층 포용적 설계 호평

횡성읍 꿈틀어울림센터가 '2025년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업이 두드러지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새로운 공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설계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브랜딩이 장점으로 손꼽혔다.

꿈틀어울림센터는 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브랜딩과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박현철 기자



박현철 lawtopia@kado.net